

의학학술지의 발행인과 편집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서 정 육

서 론

의학학술지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잡지의 성격과 품질을 결정한다.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으나, “어떤 잡지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은 발행인의 몫이고 “얼마나 좋은 잡지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편집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들은 발행과 편집에서 비전문가적인 요소가 많다. 경쟁력을 갖춘 잡지, 읽히는 잡지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희생적인 제작의욕이 앞서 있다. 학술지가 학문 분야의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는, 학술지를 통하여 발전을 이끌어 가려는 분위기이다. “독자”와 더불어 학술잡지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발행”과 “편집”의 기능을 검토하고, 서울의 대 학술지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며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인

발행주체의 책임자가 발행인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학술지의 경우 학장이 발행인이 되고 학술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장이 임기 동안 발행인이 된다. 발행인은 재정과 인사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잡지의 성격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영주이다. 경영주는 잡지 발행의 모든 측면에 책임과 관심을 갖게되나 그

중에서도 독자의 반응과 요구는 발행인으로서 가장 큰 부담이자 힘의 원천이다. 요즘 일간 신문들이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고, 독자와의 교감은 발행인이 직접 담당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이다. 발행인의 결정은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며, 방법은 편집인의 기능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학문과 학술지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단체장의 임기가 1-2 년 정도인 우리나라 학술단체의 경우 발행인은 임기에 따라 바뀌게 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술지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발행인의 결정은 신중해야하고 임기에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발행인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가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거나 잡지의 성격을 바꾸려 하는 중대 결정을 내릴 때이다. 잡지를 창간하거나 발행 형식을 수정하려 할 때 발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5 가지이다. 첫째, 해당 분야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해당 분야라 함은 학술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발행주체의 성격을 칭할 수도 있다. 그 분야의 논문을 모아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 분야의 발전에 필요하며,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투고자에 대한 검토이다. 투고자의 수준과 규모가 잡지의 질과 직결됨은 분명하다. 셋째, 독자에 대한 검토이

다. 읽히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자층의 규모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경제와 행정에 대한 검토이다.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 포괄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건실한 재정은 독자와 발행주체의 균형있는 부담을 전제로 하고 행정지원은 인쇄 관리, 잡지 발송, 독자 관리 및 과년호 관리 뿐아니라 편집인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번째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학문과 단체의 역사와 발전 추세를 검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야 한다.

서울의대잡지 창간사에서 당시의 발행인인 명주완 학장은 학술지의 필요성, 권위,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 1994). 서울의대라는 학술 단위가, 서로의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열악한 연구 여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당시의 우리나라의 학술지만으로는 이들의 논문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전문학술지가 속속 창간되고, 서울의대 학술지의 창간에 동참했던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학회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맞게 된다(지제근, 1995). 또한 각 분과 전문 학술지에 비하여 광고료, 투고료 및 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여건에서 열악하였다. 그러한 여건에서도 꾸준히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기초의학의 논문들이 많이 실려 서로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었던 점과 편집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울의대학술지 창간과 즈음하여 각 분과학회의 전문 학술지들이 창간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10여 년간은 특수 전문 학술지와 신설 의과대학의 종합학술지가 창간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이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창간되는 잡지마다 새로운 분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독자와 투고자 및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덜 고려되는 경향이다.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좋은 논문과 나쁜 논문이 한 잡지에 섞이게 되면 조만간 좋은 논문이 빠져나가게 마련이다. 결국 초창기의 열성이 감소할

때 쯤이면 논문의 하향 평준화가 나타나고(서정욱, 1992) 학술지의 기능이 저질 논문 구제의 수단이 되고 만다.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의무투고 조항이나 포상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나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센티브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읽히진 않더라도 인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적절한 투고자군과 독자층의 확보가 학술지의 발행의 선행 조건이다.

서울의대학술지의 창간 당시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 중의 하나가 경제와 행정적 어려움이다. 당시에는 창간후 지속하지 못하는 학술지가 많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조승렬, 1995). 상대적으로 인쇄비 특히 식자, 조판비가 비쌌고, 발행비에서 직접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다. 이에 비하면 요즘의 재정현황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교적 건실한 51 개의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8억 7천 7백만 원에 이른다(대한의학회, 1992). 총액으로 보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잡지별로 계산하면 1년 발행비가 1,700만 원에 불과하다. 인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은 극히 일부만 반영되어 있다. 외국 잡지의 경우 연 10 만원의 구독료를 부담할 유료독자 820 명을 확보하고 96 페이지씩 4 호를 발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계산된 바 있다(Page, 1991). 즉 연간 발행비를 8,200 만원으로 책정하는 외국 잡지에 비하여 우리잡지는 재정구조상으로 매우 취약하다. 독자로부터 받은 구독료를 떼뺏하게 쓰기 보다는 소속 단체의 출연금을 구걸해서 운영한다. 부족한 학회 살림을 잘 아는 편집인은 좋은 잡지를 만들기 보다 값싼 잡지를 만들고, 적절한 보상과 투자와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 독자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는 자부심보다, 봉사정신과 의무감으로 일하며, 편집간사와 보조원은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 잡지 발행의 앵겔계수가 매우 높다.

잡지의 성격 수정이나 폐간은 그 목적과 방법에 관계없이 창간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서울의대학술지도 두 차례 잡지 이름을 변경하였고

우리말-영문 혼용에서 영문잡지로 바뀌는 변혁을 기록하였으며 이제 폐간을 단행하려는 시점에 이르렀다. 잡지 발행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창간하는 시점에서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이성적이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의협심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되면 안되고 충분한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서울의대 학술지가 폐간이라는 체제 변화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66-1970년과 1980년대 말 이후로 원고부족이 심하였었고(지제근, 1995, 유근영, 1995) 6년 전에도 폐간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유근영, 1995). 최근 2년간 백서발간과 대학발전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이 과정이 물론 폐간을 목적으로한 행사는 아니었으나 본 학술지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지제근, 1994). 편집위원회와 발행인은 창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대학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 입각하여 폐간을 결정하게 되었다(채종일, 1995; 이순형, 1995).

서울의대 학술지의 경험을 볼 때, 발행인의 기능이 편집인에게 떠 맡겨진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잡지를 적극 보급하고 독자의 반응을 살피는 발행인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독자의 비판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발행인이어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과 신중한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이 발행인 업무의 특성이어야 한다.

편집인

편집인은 소속 학술단체 회원, 저자, 독자 및 발행인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잡지 발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편집인이 해당 단체의 지도자이고 권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문적 문제보다는 편집 경영의 미숙이 어려움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저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편집인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조승렬, 1989). 편집위원장의 임기가 학회 임원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이성낙, 1992)

서울의대학술지의 경우 발행인의 잦은 교체에 비하여 편집인은 비교적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된다. 편집인은 능력(aptitude), 교육(training), 기술(skill), 경험(experience), 책임감(responsibility)의 5 가지를 겸비하여야 한다(Young, 1991). 편집인의 성격을 소극적 문법수정인(passive grammar corrector)으로부터, 반응적인 검열관(reactive censor), 좀더 진보적인 연구촉진자(active facilitator)로 나눌수 있다(Young, 1991).

편집인의 연구촉진 기능은 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2명 또는 편집위원중 1명과 외부 인사 1명의 방식으로 하였는데(유근영, 1995),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심사위원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게 되면서 심사위원의 역할이 편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다. 다섯 부류의 심사위원으로 나눌수 있다. (1) 학문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게 심의하는 젊은 심사위원, (2) 웬만하면 게재허가를 주는 너그러운 심사위원, (3) 사소한 타자오류와 철자법등을 주로 고치는 위원, (4) 심사의뢰 후 세월이 가도록 아무 연락도 주지 않는 세칭 유명한 인사들, (5) 적절히 조화된 심사를 해주는 위원. 이러한 구분이 추후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지만 믿을 만한 심사위원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편집인의 역할중의 하나이다.

편집인은 심사위원의 심사기술 향상과 심사의욕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왜 심사가 필요한가? (2) 심사자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될 일은? (3) 어떻게 심사자를 선정하는가? (4) 심사자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5) 심사자를 어떻게 동기 유발하는가? (6) 능률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은? (7) 어떤 경우에 심사의견을 무시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Lilleyman, 1991). 심사위원으로 타학회 인사를 폭넓게 위촉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자료 관리를 실시하여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한 예우는 심사료 지급, 벡타이, 달력일기장, 심사위원 파

티 등이 가능하다.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을 보내주는 성의를 발휘하면 특히 고마와하고 최종 편집인 판정을 알려주는 것도 심사자를 동기유발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Lilleyman, 1991). 아울러 editorial, correspondence 등을 이용한 독자 서비스에 좀 더 적극적 이어야 겠다(조승렬, 1989).

편집위원회는 10 명 이내의 상임위원회 형식이거나 20 - 30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총회로 활동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편집 실무 기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편집위원회의 고유 기능은 다음의 안전을 심의하는 것이다. 1)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 현황보고, 2) 심사후 게재 여부 판정기준 토의 및 게재 거부 비율 결정, 3) 문제가 된 심사 안전에 대한 확정 토의, 4) 특집 논문의 주제 선정, 5)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 6) 발행인과의 협조 사항 등이다. 편집 실무는 편집위원장과 간사 및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편집 계통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대 학술지의 경우 1년에 4회 소집되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으나,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이라 판단되어 최근 2년 동안 편집위원장 중심의 상설 편집계통을 운영하였다. 편집위원회는 7-8명이 분기별로 모여 중요사안을 심의하였다. 안전 중 편집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발행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즉, 예산 결산 심의, 잡지 인쇄소 변경, 배포처 확대문제, Index Medicus 신청 문제 등은 발행인의 결정 사항을 편집인이 대신하여 검토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발행인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고 편집위원회와 인쇄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상황이었다.

편집실무를 편집위원장이 직접하든 편집간사가 하는 경우이든 적절한 보조원의 도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의 양이 많지 않고 다양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전문인력에게 실무를 시키는 수가 많은데, 이는 전문인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편집 사무의 질은 떨어뜨리는 일이다. 편집 보조인은 심사의

과정과 학술지 발행의 기본 형식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한다. 일관성있고 안정된 편집사무가 있어야 심사위원과 독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편집인과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과 판정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기능이 학술지 편집 업무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외국처럼 전문대학 수준의 편집 보조인(copy editor) 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개 잡지의 편집 사무를 공동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을 시간제로 쓰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된다. 아직도 많은 편집인들이 편집사무 전문가의 육성을 외면하고 동료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지재근, 1994).

편집인들이 편집에 대한 전문가라기 보다 해당 분야의 연구업적을 인정 받아 학술적인 지도자로 추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집 기술이나 대외 활동에서 미숙한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편집 기술 보완을 위한 공동 노력이 활발하다(Polderman, 1995). 유럽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에서는 매년 편집인 워크샵을 개최하며 연 3회 발행되는 소책자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 의학잡지 편집인 협회는(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1991; 홍성태, 1992) 논문투고양식에 대한 Vancouver 규정을 제정하였다. Vancouver 협약에 참여한 중국 의학잡지가 40여 개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개의 잡지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편집인 외교의 부재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술지가 외국 색인 기관에 등재되기 어려운 것도 편집인의 실무적인 외교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서 편집인으로서의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잡지의 국제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서도 편집인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조승렬, 1989; 서정욱, 1992; 임정기, 1995). 우리나라의 많은 학술지들이 아무런 평가나 견제없이 발행되며, 독자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편집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편집인 협의회를 통하여 학술지와 편집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학술모임에 참여하여 우리 학술지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결 론

Index Medicus 등 외국 색인기관에 등재하려고 노력하는 발행인과 편집인은 많으나, 잡지 편집을 전문화하여 잡지의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독자에게 읽히고 독자에게 필요한 잡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편집인들이 “Index Medicus에 게재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들 문제점이 개선된 후에도 Index Medicus에 등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Index Medicus의 심사위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독자이며, 독자들이 찾는 잡지를 만드는 것이 발행인과 편집인의 첫째 과제인 것이다.

의학 학술지를 위한 발행인과 편집인의 노력을 학술지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발행인은 독자의 요구와 학술분야의 현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편집인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독자에게 접근하려는 노력과 읽히는 잡지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되, 신중하게 결정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잡지 발행이 학문 발전을 앞서 갈 수는 없으며, 성급한 의욕은 저질 논문과 읽히지 않는 잡지를 만들어,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됨을 발행인은 인식해야 한다.

둘째, 편집인은 일관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이다. 발행인이 편집인을 임명하나, 편집인은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다기 보다

잡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책임지는 양심이어야 한다. 연구 업적이나 논문발표경력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고, 10년정도의 임기 동안 잡지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잡지 발행의 실무를 깔끔히 처리하는 것은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이는 편집 실무자에 대한 적절한 투자로서만 가능하다. 열악한 우리 학술지 여건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편집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 외국의 편집인 협의회와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 잡지의 현실이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의 현실이 국제사회에 개방되어야 우리 학술지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한의학회. 설문서 및 집계결과. 제 2 회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의학회, 서울, 1992 pp73-81

서울의대학술지 편집위원회. 서울의대학술지 백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1994.

서정욱. 의학 잡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2 회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의학회, 서울, 1992 pp 35-44.

유근영. 서울의대잡지(1985-1995). Seoul J Med 36: 249-256, 1995

이성낙. 의학학술지의 평가. 제 2 회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의학회, 서울, 1992 pp 67-68

이순형. 폐간사. Seoul J Med 36:211, 1995

임정기. 전문학술지의 현황과 과제. Seoul J Med 36 :229-234, 1995

조승렬.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당면과제.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의학회. 서울, 1989, pp 7-20.

조승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역사. Seoul J Med 36:213-222, 1995

지제근. 서울의대 학술지의 진흥 방안. 대학발전 세미나 계획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1994

지제근. 서울의대잡지(1960-1976). Seoul J Med 36: 241-244, 1995

채종일. 종합 및 전망. Seoul J Med 36:257-260, 1995

홍성태. 의학잡지의 투고양식. 제 2 회 국내 의학 학

- 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의학회, 서울, 1992 pp 13-31.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ew Engl J Med* 1991;324:424-8.
- Lilleyman J. Getting the best out of referees. In *BMJ/EASE, Editing a medical journal: a workshop for editors of medical journals.* 1991
- Page G. Economics of journals. In *BMJ/EASE, Editing a medical journal: a workshop for editors of medical journals.* 1991
- Polderman AKS. How Dutch editors learn to be editors. *European Science Editing* 1995;56:3.
- Young R. Editorial freedom. In *BMJ/EASE, Editing a medical journal: a workshop for editors of medical journals.* 1991